

황룡사의 전설들에 관하여

On the Legends of Temple Hwang-Yong

저자 (Authors)	김대식 Dae-Sik Kim
출처 (Source)	민족미학 1 , 2003.7, 185-195(11 pages) Korean Aesthetics 1 , 2003.7, 185-195(11 pages)
발행처 (Publisher)	민족미학회 Academy of Korean Aesthetic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771499
APA Style	김대식 (2003). 황룡사의 전설들에 관하여. 민족미학, 1, 185-195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9 13: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황룡사의 전설들에 관하여

*

김 대 식*

1. 역사 속의 황룡사

황룡사는 진흥왕 14년 553년에 짓기 시작하여 569년에 완공되었다.1) 이어 574년에 장륙삼존불이 만들어지고 진평왕 6년에 이르러, 아마도 장륙존상을 위한 금당이 세워지는데 학자들은 이 때 황룡사가람 전체에 대한 중건이 계획되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후 선덕여왕 때에 자장의 주청으로 9층탑을 짓게 되어 645년에 탑이 완공된다. 황룡사는 진흥왕이 처음 짓기 시작한 지 93년 만에 진지왕, 진평왕, 선덕여왕에 이르기까지 네 왕에 걸쳐 국찰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 후로도 통일신라기 경덕왕 13년 754년에 무게 49만여 근으로,

* 사진작가, 소설가.

1)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27년(566년)에 ‘황룡사의 공역을 마쳤다’고 되어 있으나 『삼국유사』에는 황룡사를 진흥왕 14년에 짓기 시작하여 17년만인 진흥왕 30년(569년)에 주위 담장 지붕을 만들어 완공을 보았다고 되어 있다.

지금 남아 있는 성덕대왕 신종의 네 배나 되는 무게의 황룡사 대종이 만들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종루와 경루가 목탑 남쪽 좌우에 배치되면서 중문과 강당의 평면 형태가 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창건 이래로 황룡사에서는 왕이 친행하는 국가적 행사가 종종 행해졌다. 진평왕 35년 황룡사에 백고좌를 마련하고 원광 등의 법사를 초청해서 불경을 강론한 이후 진평왕 44년, 선덕여왕 5년에도 왕이 황룡사를 찾았다고 있다. 경덕왕 6년 왕이 연등을 보고 백관에게 연회를 베풀었고, 헌강왕 2년과 12년, 정강왕 2년, 진성여왕 즉위년에 백고좌가 열렸다. 진성여왕 4년에 왕이 연등을 관람했고, 경애왕 즉위년에 마지막으로 백고좌가 열린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 이처럼 역대 왕들의 빈번한 황룡사 친행은 황룡사가 호국사찰이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²⁾

이밖에도 황룡사 관련 기록이 드문드문 보이는데 장륙상이 눈물을 흘려 진흥왕이 죽을 조짐을 미리 보였다는 전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황룡사 금당의 벽에 그린 솔거의 소나무 그림에 새들이 날아와 앉으려다 땅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후대에 개칠을 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유명한 일화가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그러나 1238년 몽고군의 방화로 황룡사가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됨으로서 황룡사에 관한 기록들도 아울러 맥이 끊기고 만다.

젓터미로 화한 황룡사 터는 가끔 시인 묵객의 탄식의 대상이 되었을 뿐 7백년이 넘게 방치되어 왔다. 황룡사 터는 그러나 신라 최고, 최대의 사찰이었다는 점에서 일제 때에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호되어 오다가 1976년에는 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시작되었다.

2) 이에 관해서는 이기백, 「황룡사와 그 창건」, 『신라사상사 연구』, 일조각, 1997. 특히 이 논문의 제2절 '백좌강회와 간등의 도량' 참조.

이후 8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황룡사의 가람 배치가, 과거 일제 때에 발표되었던 1탑1금당이 남북 일렬로 된 정방형 형태가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황룡사는 남쪽에서부터 문, 탑, 금당, 강당의 순으로 중심 건물이 배치되어 있었고 문과 강당을 연결하는 회랑이 둘러져 있었는데 회랑은 복랑이고 그 안 뜰에는 금당 좌우에 별도의 건물지가 있으며 탑 전방 좌우에도 건물지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황룡사의 가람 배치가 평양 부근 청암리의 고구려 금강사 터의 1탑3 금당식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당 좌우의 건물지는 금당의 성격을 띄고 있고 탑 전방 좌우의 건물지는 각각 경루와 종루로 추정되고 있다.³⁾

2. 황룡사의 전설들

경주박물관에 가면 황룡사의 복원 모형을 볼 수 있다. 황룡사 터의 발굴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황룡사의 공식적인 복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형적인 복원이 황룡사의 모두는 아닐 것이다. 황룡사에 관해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은 황룡사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된다. 일연이 전하는 여러 전설들—전불시의 7처 가람 전설로부터 시작하여 황룡 출현의 전설, 가섭불 연좌석의 전설, 장륙삼존의 전설, 9층탑의 전설 등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다.

3) 문화재관리국, 『황룡사-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4.

1) 가섭불 연좌석

황룡사는 창건 자체가 전설로 시작된다. 『삼국유사』 ‘황룡사 장륙’조를 보면, “신라 제24대 진흥왕 14년 계유 2월에 궁궐을 용궁 남쪽에 지으려고 건축하는데 누른 용(黃龍)이 그 터에서 나타나므로 그만 고쳐서 절을 설치하고 이름을 황룡사(黃龍寺)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애초에 궁궐을 지으려던 터가 황룡의 출현으로 절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 또 다른 전설이 황룡사 터는 전세에 이미 절터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삼국유사』 ‘아도기라’ 조에서 아도의 어머니가 아도에게 이르기를 “(신라) 서울 안에 일곱 군데 옛 절터가 있으니 첫째가 금교의 동쪽 천경숲이요(흥륜사), 둘째는 삼천 가닥(영흥사)이요, 셋째는 용궁 쪽(황룡사)이요...” 하면서 일곱 군데 모두가 전 세상 부처님 시대에 절터였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 세상 부처님 시대의 절터’는 또 가섭불 연좌석의 전설로 이어진다.

일연은 옥룡집과 자장전 등 여러 전기에서 “신라의 월성 동쪽 용궁 남쪽에 가섭불의 연좌석이 있다. 이 터는 전 세상 부처님 시대의 절터인바 지금의 황룡사 터로서 즉 일곱 개 절터의 하나이다”라고 하였고 인용을 하고 있다.

일연은 일찍이 자신이 황룡사를 찾았을 때 “연좌석은 불전의 후면에 있었는데 돌의 높이는 5, 6척 가량 되고 둘레는 3주(肘)나 되어 꽃꽂이 서서 그 정수리는 편편하였다. 진흥왕이 절을 세운 이래로 두 번이나 화재를 거쳐서 돌이 터져 벌어진 데가 생긴 것을 중들이 쇠로 때워 붙여 보호하였다”고 말한 후에 다시 “얼마 후 서산의 큰 병란이 있는 뒤에 불전과 탑은 모두 타 버리고, 이 돌도 역시 문혀서 거의 땅과 같이 평평하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⁴⁾

4) 『삼국유사』 권 제4 탑상 가섭불 연좌석 조.

2) 장륙삼존

황룡사가 1차 완공을 본 이후 얼마 안 되어 거대한 불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장륙삼존상의 주조가 그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여기에도 전설이 따른다.

(황룡사가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 남쪽 바다로부터 큰 배 한 척이 하곡현의 사포에 와서 정박하므로 뒤져보니 첩문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서축(인도)의 아육왕(阿育王)이 황철 5만 7천근과 황금 3만푼 중을 모아 석가 3존을 부어 만들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배에다가 실어 띄우면서 축원하나니 원컨대 인연 있는 땅에 닿아 장륙(丈六)의 존귀한 모습이 되소서.”

이와 아울러 건본으로 부처 하나와 보살상 둘이 실려 있는 것을, 고을 관리가 사연을 갖추어 국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명하기를 그 고을 성 동쪽에 깨끗한 터를 잡아서 동축사를 세우고 세 부처를 맞아 모시라 하였다. 배에 실려 온 금과 철은 서울로 실어다가 대건 6년 갑오(574년) 3월에 장륙불상의 주조가 한번에 끝나니 무게가 3만 5천 7근이요 여기에 든 황금이 1만 1백 98푼이며 두 보살 불상에 든 철이 1만 2천근이요 황금이 1만 1백 36푼 중으로 모두 황룡사에 모셨다.⁵⁾

기원전 3세기 경에 전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보호했던 아쇼카왕이 석가 생존시에 친히 공양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불상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세 번씩이나 주조에 실패하자 황철과 금을 실어 배에 띄운 것이, 천년이 넘도록 온 세상을 떠돌다가 신라 땅에 도착하여서는 단 한번 만에 불상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가.

5) 『삼국유사』 권 제4 탑상 황룡사 장륙 조.

지금 황룡사 금당 터 중심부에는 자연적으로 된 거대한 대석이 세 개 남아 있는데 학자들은 그 모양과 크기로 장륙상을 입상으로 추정하고 그 높이가 5미터 안팎이었을 것으로 말한다. 그리고 장륙삼존상 대석의 좌우에 있는 10기가 넘는 불상 대석들은 10대 제자상과 신장상, 사천왕상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구층탑

장륙삼존과 함께 신라 3보 중의 하나로 꼽혔던 9층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의 발의로 이루어진 것인데 여기에도 어김없이 전설이 따르고 있다. 자장은 중국의 태화지 못둑을 지나다가 신인(神人)을 만나서

황룡사의 호법룡은 바로 나의 만아들이다. 범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이 절을 호위하고 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 절 가운데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9한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⁶⁾

라는 말을 듣는다. 자장은 귀국하여 선덕여왕에게 탑 세울 것을 건의하고 이에 아버지라는 백제 장인을 청하여 김용춘이 신라 장인 200명을 인솔하여 645년에 완성하였다. 탑의 건립 과정에서 앞날의 역사를 예언하는 또 하나의 전설이 태어난다. 백제의 장인 아버지가 백제가 망하는 꿈을 꾸어 공사를 멈추었더니 갑자기 대지가 진동하면서 어두워진 속에서 늙은 중과 장사 한 사람이 나타나 기둥을 세우고는 종적을 감추었다는 것이다.⁷⁾

6) 『삼국유사』 권 제4 탑상 황룡사 구층탑 조.

7) 『삼국유사』 권 제4 탑상 황룡사 구층탑 조.

이런 곡절 끝에 완공된 탑은 탑신부 약 65미터 상륜부 15미터 해서 전체 80미터가 넘는, 당시 최고의 목조건물이었다고 한다. 일연은 9층탑이 불타기 전에 올라가 보았던 듯 찬사에서 “올라서 굽어볼 제 9한만 항복하라, 천하라도 평정할 것을 이제야 알과라”하고 올라가 본 소감을 피력하고 있다.

3. 하나의 시나리오

이 일련의 전설들을 유심히 읽어보면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어렵듯이 느낄 수 있다. 자장이 중국에 유학하여 오대산에 갔을 때 문수보살이 현신하여 이렇게 말했다 한다.

너희 나라 황룡사는 바로 석가와 가섭불이 강연한 땅으로 연좌석이 아직 거기에 있다. 이 때문에 천축의 무왕이 황철 약간 근을 모아 가지고 바다에 띄워서 1천 3백여 년을 지난 후에 그것이 너희 나라에 닿아 불상을 만들어 그 절에 모시게 되었으니 이는 부처님의 위엄과 인연이 그렇게 시킨 것이다.⁸⁾

이 대목에서 우리는 가섭불 연좌석의 전설과 장륙삼존의 전설이 연결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가 하면 자장이 중국에서 태화지 못 독을 지나다가 만난 신인(神人)이, 그의 맏아들이 황룡사의 호법룡이라고 말하고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라고 권하는 대목에서는 황룡 출현의 전설이 9층탑 전설과 연결되고 있다.

결국 가섭불 연좌석의 전설에서 시작하여 황룡사의 창건 전설, 장륙삼존 전설, 구층탑 전설에 이르기까지 이들 전설이 하나의 시나리

8) 『삼국유사』 권 제4 탑상 황룡사 구층탑 조.

오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궁극적으로 불국토사상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황룡사가 있는 신라 땅은 부처와 바로 통하는 곳이며 더구나 석가모니 이전에도 이미 부처님의 땅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게 되면 ‘이웃 나라들이 항복을 하고 9한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는 9층탑 전설은 이 시나리오의 결론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한 가운데에 자장이라는 인물이 있다. 자장은 이 시나리오의 작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종 자료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가섭불 연좌석’이 전설의 출처는 그 허두에서 일연이 밝혔듯이 『옥룡집』, 『자장전』이다. 그리고 장륙삼존의 전설 또한 『자장전』에 의거하고 있음이, “35년에 황룡사 장륙상을 주조하였다. 혹 전하기를, 아육왕이 탄 배에 황금을 싣고 사포(絲浦)에 왔었는데, 그 황금을 수입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자장전』에 있다”⁹⁾는 『해동고승전』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9층탑 전설은 자장의 체험기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니 더 말할 나위 없다.

4. 삼국통일의 이데올로그 자장

자장으로 하여금 황룡사를 에워싼 여러 전설들을 엮어서, 불교의 신라 전래 이후 강조되는 불국토 사상을 거듭 고취시키게 한 것은 자장 당대의 정치 현실이었다. 자장은 중국에서 유학하던 중에 선덕여왕이 당 태종에게 자장을 돌려보내 달라고 글을 올려 643년 3월 귀국하게 된다. 자장의 귀국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 소환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覺訓 撰, 『해동고승전』 법운 조.

당시 신라 왕실은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선덕여왕 11년(642년) 7월 백제 의자왕이 신라를 쳐서 40여 성을 함락시킨다. 8월에는 백제가 신라의 당항성을 압박하여 대당(對唐) 교통로가 폐쇄될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이어 백제가 대야성(지금의 합천)을 함락시켜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인다. 이때의 패배는 신라를 충격으로 몰아넣어 신라의 김춘추는 이를 설욕하기 위해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러 들어갔지만 실패하여 빈손으로 돌아왔다.

한편 신라는 여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점이 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었다. 선덕여왕 12년 9월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를 공격하려는 꾀를 낸 신라는 당에 사신을 보내 원병을 청하기에 이른다. 이때 당 태종이 “그대 나라는 임금이 부인이어서 이웃 나라의 경멸을 받는다”라고 한 말은 신라 지배층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 태종의 말은 선덕여왕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명분을 주어 선덕여왕 16년에 상대등 비담 일파가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女主不能善治)”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반란으로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위기 상황은 또, 삼국유사 황룡사 구층탑 조에 나오는 자장과 신인과의 다음과 같은 대화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기도 하다.

“너희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는 신인의 물음에 자장이,

“우리나라는 북으로 말갈과 이어지고, 남으로 왜국과 접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번갈아 국경을 침범하고 이웃의 적들이 횡행하여 이것이 바로 백성들에게 고통이 되고 있소.”

라고 대답하니,

“지금 너희 나라는 여자가 임금이 되어 덕은 있으나 위엄이 없으므로 이웃 나라들이 모해하고자 하니 너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신인

이 말했다.¹⁰⁾

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귀국하게 되는데, 계명대 노중국 교수는 이 시기를 신라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라가 처한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은 신라로서는 최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라는 무엇보다도 밖으로는 여제(麗濟)를 멸망시켜야 했고 안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여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종래의 세력균형 의식을 버리고 삼국을 통일하여야 하겠다는 이른바 ‘통일의지’가 형성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통일의지는 당시 신라 지배층을 이끌어가던 김춘추·김유신 세력에 의해 주도되었다.¹¹⁾

노중국 교수는 또,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이 통일의지를 종교적으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²⁾ 자장이 구층탑 건립을 주청한 것은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종교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장의 주청에 신라 왕실이 백제의 아버지를 초빙하고, 용수로 하여금 공사를 총괄하게 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여 불과 2년 만에 9층탑 건립의 대역사를 끝낸 것 또한 신라 왕실이 이러한 통일의지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할 것이다.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수용이 고대 국가의 발전, 완성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학자들은 불교가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면서 귀족을 포용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형성에 공헌하는 통치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 말기 세 나라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려제동맹의 형태로 고구

10) 『삼국유사』 권 제4 탑상 황룡사 구층탑 조.

11) 노중국, 「신라와 백제의 교섭과 교류」, 『신라문화』 제17·18 합집, 2000. 160쪽.

12) 상동.

려, 백제로부터 압박을 받던 신라에서는 불교가 단순히 대내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삼국통일의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되어 그것이 황룡사 구층탑의 건립으로 표출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황룡사를 에워싼 전설들에서도 드러나는 바, 황룡사 창건설화, 가섭불 연좌석 전설, 장륙존상의 전설 등에서는 불국토설이 줄곧 강조되어오다가 황룡사 구층탑 전설에 이르러서는 ‘이웃나라들이 항복하고 구한이 와서 조공하여 왕위가 길이 평안하리라’는 세속적, 정치적인 발원이 덧붙여지는 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안흥의 『동도성립기』를 인용하여 황룡사 9층탑의 건립으로 진압하게 되는 9한을, 9층탑의 층수에 따라 1층부터 일본, 중화(中華), 오월(吳越), 탁라(托羅), 응유(應遊), 말갈(靺鞨), 단국(丹國), 여적(女狄), 예맥(濊貊)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¹³⁾ 여기에 빠져 있는 백제, 고구려가 ‘항복하게 될 이웃나라’로 해석될 수 있음에 비추어 황룡사 9층탑 건립이 삼국통일을 겨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삼국통일의 주역으로 무열왕, 김유신, 문무왕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들에 못지않게 자장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자장이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소환되는 점이나, 귀국하자마자 정치적인 성격이 다분한 황룡사 9층탑 건립을 주청하는 등의 활동을 보더라도 자장은 당시 정치 무대의 한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김춘추가 외교 분야에서 활약하고 김유신이 군사 분야를 떠맡고 있었다면 자장은 이념 분야를 맡아 내외위환으로 흔들리는 왕실을 지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자장을 김춘추, 김유신과 나란히 삼국통일의 주역 자리에 내세운다 하여도 별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13) 『삼국유사』 권 제4 탑상 황룡사 구층탑 조.